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개혁주의생명신학

The Image of God in the Book of Ezekiel and Reformed Life Theology

김창대(Chang Dae Kim)

안양대학교, 구약학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올바른 신학의 부재에 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결여된 인본주의적 학문으로서 신학으로 흘러 버린 결과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올바른 신학의 방향성은 개혁주의생명신학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다.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신학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무엇이 진정한 생명이고 그 생명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적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을 대조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함의하는 신학적 의미들을 살펴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드러나는 생명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생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우리의 신학함이 어떤 방

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의 주제를 공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주제를 주위 문맥과 함께 석의하고 거기서 신학적 함의들을 도출할 것이다. 이어서 그렇게 도출된 결론들이 에스겔서의 다른 곳에서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관찰할 것이다. 이런 작업은 에스겔 37장에서 도출된 결론에 더욱 무게를 실어줄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개혁주의생명신학 속에서 신자와 신학자들이 추구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제안하며 마무리하겠다.

Ⅱ.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주제

짐머리(Zimmerli)는 에스겔서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는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¹ 하지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주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다른 주제들과 모티프를 통해서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제들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제와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에스겔서에서 두드러진 주제 중에 하나는 우상숭배에 관한 논쟁이다.² 에스겔 5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멸망

1) W. Zimmerli, *Ezekiel 1*, trans. R. E. Clements,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1979), 52.
2) John F. Kutsko, "Ezekiel's Anthropology and Its Ethical Implications," in *The Book of Ezekiel: Th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ed. Margaret S. Odell and John

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처음 제시한다. 한 마디로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유다 백성들이 제의적으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분석이다. 에스겔 5:11에서 에스겔은 “미운 물건”(רִיפֶשׁ/취꾸쓰)과 “가증한 일”(ניבּוּשׁ/토에보트)을 말하고 있는데 이 용어들은 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6장에서 에스겔은 우상을 지칭하기 위해 “길롤림”(גִּלְלוּלִי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6:4, 5, 6, 9, 13). 그래서 “산당”과 “태양상”, “우상” 등을 언급하며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을 강하게 질타한다. 우상숭배에 관한 모티프는 8장에서 더욱 크게 등장한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언급은 이후에도 계속 자주 나타난다(에스겔 14, 16, 18, 20, 23장) 우상숭배는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으로 일관되게 지적하는 죄악이었다.³

에스겔에서 우상은 하나님의 형상(the image of God)을 잘못 형상화한 것으로 제시된다.⁴ 그래서 에스겔은 우상을 향해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신 4:28; 겔 20:32 참조).⁵ 이에 대한 증거로 쿠츠크(Kutsko)는 에스겔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했음을 제시한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상은 “샬람 일리/일라니”(šalam ili/ilāni)로 불렸다. 에스겔은 이와 같은 메소포타미아의 신학에 근거해서 에스겔 16:17에서 우상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의 형상으로 부르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비판한다.⁶ 그는 신상에

T. Strong (Atlanta: SBL, 2000), 120.

3) John F. Kutsko, *Between Heaven and Earth: Divine Presence and Absence in the Book of Ezekiel*, *Biblical and Judaic Studies* 7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0), 26.

4) Kutsko, *Between Heaven and Earth*, 27.

5) Kutsko, *Between Heaven and Earth*, 35.

6) Kutsko, *Between Heaven and Earth*, 30.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16:17; 23:14-15 참조). 에스겔은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신상을 혐오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의 형상을 표현하는 “짚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쨈렘”(מַלְאָכִים)을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것도 자제한다. 대신에 그는 히브리어 단어 “데무트”(דְמוּת)를 사용한다(1:26; 8:2). 이점은 에스겔 1:28에서 “여호와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מְרֹאֵה דְמוּת כְבוֹד־יְהוָה)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에스겔 1:26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사람의 모양과 같다”(דְמוּת כְמוֹת אָדָם)라고 말한다(8:2 참조).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모양이라는 표현은 인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쿠츠코는 에스겔서에서 우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 배후에는 인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학이 전제한다고 주장한다.⁷ 그에 의하면 에스겔서에서 우상숭배에 관한 논쟁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신을 형상화한 우상들은 거짓이라는 신학적 주장이 그 기저에 깔려있다고 본다.

우상숭배 논쟁과 함께 에스겔서에 두드러진 죄악으로 지적되는 주제는 피 흘림과⁸ 강포이다(7:11, 23; 8:17; 12:19; 22:2; 24:6, 9; 45:9). 특별히 8장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비밀스럽게 행해지는 우상숭배의 행태들(투기의 우상, 벽에 그려진 각종 곤충들, 담무스의 우상, 태양신)을 목격한 에스겔에게 다시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의 강포함을 지적하신다(8:17b). 우상과 강포함/피 흘림이라는 주제는 이후 에스겔서에서 자주 병치되어 등장한다(17:21; 22:4; 33:25). 강포함과 피 흘림

7) Kutsko, “Ezekiel’s Anthropology and Its Ethical Implications,” 134.

8) 피를 흘린다는 것에 대한 언급은 다음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겔 7:23; 9:9; 16:36; 38: 18:10; 22:3, 4, 6, 9, 12, 13, 27; 23:37, 45; 24:7, 8; 33:25; 36:18.

에 대한 질타는 창세기 9:6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살인죄는 사형규정에 처한다는 규례를 연상시킨다. 그러므로 피 흘림과 강포에 대한 에스겔의 관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학을 반영한 결과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⁹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에서 우상숭배와 피 흘림의 죄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학적 주제가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에스겔서에서는 에덴동산 모티프가 눈에 뜨게 등장한다(겔 31:9, 16, 18; 36:35).¹⁰ 에덴동산에 대한 암시는 28장에 두로 왕에 대한 예언에서도 발견된다.¹¹ 두로 왕을 통해서 비쳐지는 에덴동산의 아담의 모습은 각종 보석을 치장하고 있는데, 이 보석은 출애굽기 28:17-20에서 제사장의 옷에 붙어 있는 보석과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덴동산 모티프는 에스겔 40-48장에 등장하는 종말의 성전에 대한 환상에서도 엿볼 수 있다(겔 47:1-7). 이런 에덴동산 모티프는 확실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주제와 강하게 연관된다.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는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은연중에 강조한다.

에스겔서는 에덴동산 모티프뿐만 아니라 창조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 2-3장에 등장하는 에스겔 소명 이야기와

9) Kutsko, "Ezekiel's Anthropology and Its Ethical Implications," 135-139.

10) Daniel L.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1998), 363.

11) 겔 28:13에서는 에덴동산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Callender는 28:12에서 두로왕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칭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Dexter E. Callender Jr., "The Prime Human in Ezekiel and the Image of God," in *The Book of Ezekiel: Th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ed. Margaret S. Odell and John T. Strong (Atlanta: SBL, 2000), 186-189.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장면이다. 예를 들어 에스겔 2-3장에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인간의 창조와 매우 유사하다. 2:2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는 표현은 에스겔 37:10에서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겔 3:22, 24 참조). 또한 “일어나서 선다”라는 표현도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자신의 영으로 일으키고 세울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하다(겔 37:10; 3:22-27 참조).¹² 37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스라엘이 재창조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스겔 2-3장이 37장과 유사하다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 자신도 하나님의 의해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에스겔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측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7일을 지낸다는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3:15). 7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숫자이기 때문이다. 7일은 레위기 8장에서 볼 때에 제사장을 정결케 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다.¹³ 하지만 레위기 문맥에서 제사장의 취임은 새롭게 창조되는 모티프로도 설명될 수 있다.¹⁴ 에스겔 1:26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사람의 모양으로 말하고 있는데, 2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자임을 암시한다.

12) 이와 관련하여 Seitz는 겔 3:22-27은 에스겔 37장에서 묘사되는 창조 이야기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Christopher R. Seitz, “Ezekiel 37:1-14,” *Interpretation* 46 (1992): 53 참조.

13) R. W. Klein, 『에스겔』, 박호영 역 (서울: 성지출판사, 1999), 58. 이와 비슷한 주장은 다 음의 주석서에서도 발견된다. Margaret S. Odell, *Ezekiel*,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GA: Smyth & Helwys Publishing, 2005), 47,

14) Nobuyoshi Kiuchi, *Leviticus*, AOTC (Downers Grove, IL: IVP, 2007), 158.

더욱이 놀라운 점은 에스겔 3:18에서 “정녕 죽으리라”라는 말은 확실히 창세기 2:17의 말씀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¹⁵ 이처럼 에스겔 소명 이야기에서 창조 모티프는 에스겔 선지자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는 암시를 준다. 이런 점에서 에스겔서의 창조 모티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모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상의 관찰을 통해서 볼 때,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들과 모티프 배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라는 신학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상논쟁, 피 흘림과 강포, 에덴동산 모티프, 그리고 창조 모티프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구심점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인간이라는 신학이 놓여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라는 주제는 에스겔서의 주제들과 모티프들을 아우르는 핵심 주제이다. 따라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조명하는 작업은 에스겔 신학을 여는 중요한 열쇠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개혁주의생명신학에서 올바른 신학함의 자세에 깊은 통찰을 준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창조를 강하게 보여주는 장은 37장이다. 그러므로 37장을 중심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력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찰해보기로 하자.

15) John R. Levison, “The Promise of the Spirit of Life in the Book of Ezekiel,” in *Israel’s God and Rebecca’s Children: Christology and Community in Early Judaism and Christianity*, ed. David B. Capes and et al. (Waco, TX: Baylor University Press, 2007), 257.

Ⅲ.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의 형상

에스겔의 전체 구조는 1-32장과 33-48장으로 나누어진다. 1-32장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24장이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했다면, 25-32장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¹⁶ 그리고 33-48장도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33-39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고, 40-48장은 종말의 성전의 환상을 다룬다. 37장은 33-39장의 문맥에서 주어져 있다.

37장은 36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특별히 에스겔 36:26-27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은 에스겔 37:1-14에서 등장하는 영에 대한 언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¹⁷ 더욱이 에스겔 36:35는 인간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창조된 후에 다시 에덴동산에 거하게 될 것을 바라본다. 이런 점에서 36장은 새 언약을 통한 종말의 회복을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다시 에덴동산의 거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36장은 에덴동산 이미지를 강하게 보여준다. 36:9-11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땅에 심어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한다. 이 표현은 창세기 1-2장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또한 “아바드”(עבד)라는 단어가 36:34에서 등장한다(창 2:5, 15). 그리고 “야파브”(עפאב)가 창세기 1장과 에스겔 36:11에서 나타난다. “리쇼트”(רשׁוּט)라는 단어도 창세

16) Matthijs J. de Jong, “Ezekiel as a Literary Figure and the Quest for the Historical Prophet,” in *The Book of Ezekiel and Its Influence*, ed. Henk Jan de Jonge and Johannes Tromp (Burlington, VT: Ashgate, 2007), 3.

17) Jacqueline E. Lapsley, “The Problem of the Moral Self in the Book of Ezekiel” (Ph.D. Diss., Emory University, 1999), 219. 여기서 그는 겔 36:26-27은 인간이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묘사한다고 보았다.

기 1:1과 에스겔 36:11에서 등장한다.¹⁸ 더욱이 36:35에서는 “에덴동산”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36장은 새 언약을 통해 종말의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에덴동산으로 인도한다는 신학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에스겔서에서 언약은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이미지로 묘사된다. 예를 들어 에스겔 16:8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최초로 맺은 모세언약을 언급한다. 여기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부모에 의해 벌거벗긴 채로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해 옷 입히는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결혼 관계임을 보여준다.¹⁹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벌거벗은 자를 옷 입히는 장면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모습과 연관된다. 쿠츠코가 지적한대로, 에스겔 16:8-13은 유다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 벌거벗은 상태에서 다시 옷을 입게 되었지만 우상숭배를 통해 행음했다는 것을 지적한다.²⁰ 더욱이 에스겔 16:35는 행음을 통해 유다는 다시 벌거벗게 되었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유다가 이제는 자신의 자녀를 버려 우상의 제물로 드렸다고 진술한다. 이것은 아이러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가로 유다를 다시 원상태로 벌거벗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16:39).²¹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다. 이런 16장의 문맥에서 볼 때 36장에서 새 언약은 다시 이스라엘이 하

18) Kutsko, *Between Heaven and Earth*, 131-132.

19) David L. Thompson, “Ezekiel,” in *Cornerstone Biblical Commentary*, vol. 9, ed. Philip W. Comfort (Carol Stream, IL: Tyndale House Publishers, 2010), 111.

20) Kutsko, *Between Heaven and Earth*, 30.

21) Michael Fishbane, “Sin and Judgment in the Prophecies of Ezekiel,” *Int* 38 (1984): 138.

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에서 우상이 타파될 것을 지적한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36:25-26). 이 구절에서 “굳은 마음”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돌의 마음”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유다가 마치 우상과 같이 돌처럼 변해 있다는 신학을 보여준다(20:32 참조).²² 에스겔 20:16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했다. 심지어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세웠다고 진술하기까지 한다(14:4). 그러므로 에스겔 36장에서 회복과 인간에게 새 영을 부여하는 말씀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확실히 암시한다. 이것은 거꾸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유다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형상이기보다 우상으로 전락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시사한다.²³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를 가짜 하나님의 형상인 우상으로 본다는 신학적 주제는 에스겔 37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제 37장을 심도 있게 관찰해 보자.

22) Kutsko, *Between Heaven and Earth*, 128.

23) 이와 비슷하게 이사야서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로 전락했음을 시사한다(사 46:1-4). Kutsko, *Between Heaven and Earth*, 144-145 참조.

A. 37:1-14에서 하나님의 형상

37장은 다시 두 부분(1-14절, 15-28절)으로 나누어진다. 1-14절은 여호와와의 영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변형시키고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준다면 후반부인 15-28절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인지를 보여준다.²⁴ 37장에서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은 창세기 2:7에 인간의 창조를 연상시킨다.²⁵ 확실히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서 부활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새로운 탄생을 필요로 한다.²⁶ 쿠즈코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은 메소포타미아 신학에서 포로로 데리고 온 신상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 정결케 하는 장면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²⁷ 이런 점에서 그는 3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신학의 이미지와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혼합하여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결케 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²⁸ 그에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점은 에스겔 37:1-10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 점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유다의 회복과 일맥상통한다.

이 단락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²⁹

24) Thomas Renz,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Book of Ezekiel* (Boston: Brill, 2002), 113.

25) Joseph Blenkinsopp, *Ezekiel,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173.

26) William J. Dumbrell, *The Search for Order: Biblical Eschatology in Focus* (Grand Rapids, MI: Eerdmans, 1994), 104.

27) Kutsko, *Between Heaven and Earth*, 103-123.

28) Kutsko, *Between Heaven and Earth*, 124.

29) Ernst R. Wendland, "'Can These Bones Live Again?': A Rhetoric of the Gospel in

- A. 여호와가 에스겔에게 많은 마른 뼈들을 보여줌(1-3절)
- B. 마른 뼈들이 일어났지만 그 안에 영이 없음(4-8절)
- B'. 영이 들어와서 군대가 일어남(9-10절)
- A'. 여호와가 에스겔에 회복된 뼈(백성)의 미래를 보여줌(11-14절).

이와 같은 구조는 에스겔 37:1-14에서 의미론적 초점은 마른 뼈에 영이 들어와 군대가 된다는 데에 있음을 보여준다. 초대교회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을 부활의 증거로 해석했다. 하지만 트롬프(Tromp)는 그런 해석은 주후 2세 중반 이후 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한다. 주후 2세기에 중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가현설에 대한 대항으로 육체적 부활을 강조하는 가운데서 에스겔 37장이 종말에 육체의 부활을 뜻한다는 해석이 나왔다는 설명이다.³⁰

37:1-14에서 해석의 열쇠는 마른 뼈에 대한 해석이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은유적으로 포로기에 바벨론 공동체의 상황이 죽음과 같은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메타포인가? 문자적 해석은 에스겔 37:11-14에서 제시된 해설처럼 포로기 이스라엘이 본토로 귀환할 것을 예언하는 상징성을 올바르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단순히 은유적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포로기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은 죽음의 상황에 비유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먼저 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바벨론 포로기 공동체는 외관상 고난이 그리 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어

Ezekiel 33-37, Part II," *Andrew University Seminary Studies* 39 (2001): 263.

30) Johannes Tromp, "'Can These Bones Live?'" Ezekiel 37:1-14 and Eschatological Resurrection," in *The Book of Ezekiel and Its Influence*, 61-76.

려움을 겪었다.³¹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희망 없는 고통의 시기로 인식했다(겔 37:11). 그러므로 이런 고통을 죽음으로 비유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필자의 견해로 37장의 마른 뼈는 에스겔 전체의 문맥에서 조명할 때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에스겔 37:1-14에서 죽음과 삶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포로기 공동체의 정치적, 경제적 경험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산다”라는 주제는 이미 18:5에서 등장한다.³² 33:10에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상황에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에스겔의 심판 예언이 율법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³³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33장에서는 “산다”라는 낱말이 매우 빈번하게 등장한다(10, 11, 12, 13, 15, 16, 19절). 이와 같은 18장과 33장의 문맥에서 바라볼 때, 37장에서 마른 뼈의 상황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죽음에 놓이게 된 영적 상황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마른 뼈의 환상은 포로기의 암울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메타포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죽어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현실과 메타포의 경계의 선이 무너지고 있다.³⁴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에스겔 37:1-3에서 마른 뼈의 모습은 바벨

31) Daniel L. Smith-Christopher, *A Biblical Theology of Exile* (Minneapolis: Fortress, 2002), 65-68.

32) 율법을 행함으로써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주제는 에스겔서의 문학적 틀을 이룬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Preston Sprinkle, “Law and Life: Leviticus 18.5 in the Literary Framework of Ezekiel,” *JSOT* 31/3 (2007): 275-293 참조.

33) Leslie C. Allen, *Ezekiel 20-48*, WBC 29 (Dallas, TX: Word Books, 1990), 145.

34) Seitz, “Ezekiel 37:1-14,” 54.

론 포로 공동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 주목할 부분은 에스겔 37:1-14와 에스겔 6:1-10이 서로 의미론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이다.³⁵ 의미론적 유사점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6:1-10	37:1-14
골짜기(קִיָּץ)(3절) 우상처럼 살육당한(בָּלַח) 시체(4-5a) 해골(עצמות)(5b) 열방에 흩어짐(8절)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10절)	골짜기(קִיָּץ)(1절) 살육당한(בָּלַח) 시체 (9절) 뼈들(עצמות)(1절)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12절)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14절)

에스겔 6:1-10에서 살육당한 시체와 해골은 우상을 섬긴 결과로 제시된다. 나중에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자신들이 음란한 마음과 눈으로 우상을 섬긴 사실을 회개할 것이다(6:9). 살육당한 해골은 파괴된 우상과 함께 섞여져 우상과 동일시되고 있다. 파괴된 우상과 살육당한 시체인 유다의 모습이 서로 동일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유다가 우상숭배로 인해 그들도 우상처럼 변했다는 것을 암시한다.³⁶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유다가 가증한 가짜 형상인 우상으로 전락했다는 신학을 반영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유다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우상처럼 가증한 존재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진술은 에스겔 37장에서 유다가 회복되기 위해 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자연스럽게 설명해 준다. 한 마디로 우상과 같은 존재로는 종말의 땅인 에덴동

35) Kutsko, *Between Heaven and Earth*, 134.

36) Kutsko, *Between Heaven and Earth*, 135.

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에스겔 33:10에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자신들이 죄로 인해 쇠패한다라고 고백한다. 여기서 “쇠패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פָּרַץ (마까 11)는 기근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부패된 상태를 뜻한다(겔 4:17).³⁷ 그러므로 33장은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자신들의 상황을 죄로 인해 마치 육신이 부패한 죽은 상황으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37장도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모습을 마른 뼈의 이미지로 묘사했던 것이다.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죽음은 6장의 문맥에서 바라보면, 유다가 가증한 우상과 같은 형국으로 변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길 때, 인간은 우상처럼 변하여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다는 진리를 보여준다.

에스겔 37:8에서 “그 곳에 생기가 없다”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은 우상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문구이다(렘 10:15; 합 2:19).³⁸ 이렇게 해서 에스겔은 우상숭배로 인해 파멸된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우상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독자들에게 각인시킨다. 에스겔 37:8에서 “그 속에 생기가 없다”라고 할 때 생기는 “영”이라는 뜻의 “루아흐”(רוּחַ)이다. 10절에서 그 영은 14절에 여호와와의 영이라고 지칭된다. 이 영에 의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되는 모습은 확실히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것과 유사하다.³⁹

에스겔 37:14에서 “여호와와의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들을 땅에 둔다”

37) Jacqueline E. Lapsley, “A Feeling for God,” in *Character Ethics and the Old Testament: Moral Dimensions of Scripture*, ed. M. Daniel Carroll R. and Jacqueline E. Lapsley (Louisville: WJK, 2007), 97.

38) Kutsko, *Between Heaven and Earth*, 136.

39) Wendland, “Can These Bones Live Again?” 265.

라고 할 때 “둔다”라는 동사는 𐤃𐤍 (누아흐)이다. 14절에서 이 동사의 히 필형은 창세기 2:15에서 똑같은 형태로 나타난다.⁴⁰ 이 동사는 또한 “안식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안식의 모티프는 에덴동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내포한다(창 2:15). 36장은 새로운 영으로 변형된 백성들이 에덴동산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36:35). 이런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에스겔 37:14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형된 백성들이 인도되는 땅은 에덴동산임을 알 수 있다. 에덴동산으로 이끌려지는 모습은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의 패턴과 동일하다. 이 패턴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마른 뼈에서 새 생명으로 변형되는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다.

B. 37:15-28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형된 백성의 모습

이 단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종말의 사건을 정치적, 지역적 회복이라는 주제로 발전시킨다.⁴¹ 그렇지만 그 기저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신학이 깔려 있다. 이 단락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하나가 될 것을 예언하며 시작한다(16-21절). 하나가 된 나라에서 미래에 다윗(메시아)이 왕(𐤇𐤍)이 되어 통치할 것이다(22, 24절).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

40) Kutsko, *Between Heaven and Earth*, 134.

41) T. John Wright, “The Concept of *Ruach* in Ezekiel 37,” in *Seeing Signals, Reading Signs: The Art of Exegesis*, ed. Mark A. O’Brien and Howard N. Wallace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4), 148.

가 되듯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⁴²

에스겔 37:24는 미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는 목적을 보여준다. 즉 율례를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윤리적 삶이다. 이런 윤리적 삶에 대한 강조는 에스겔서에서 골고루 나타난다(에스겔 5, 11, 18, 20, 33장).⁴³ 특별히 에스겔 18:5-9 그리고 에스겔 22:6-12는 십계명을 연상시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령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공의와 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도덕적 계명들을 순종하는 자들이다.

에스겔 37:26-28은 하나님의 처소(מִקְדָּשׁ)가 미래에 회복된 백성 가운데 영원히 세워질 것이라고 말한다(27절). 흥미로운 점은 에스겔 37:27에서 히브리어 본문은 하나님의 처소가 그들 위에 있을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מִקְדָּשׁוֹ יִשָּׁבַע עֲלֵיהֶם). 이것은 하나님의 처소(성전)가 모든 백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확장된다는 뉘앙스를 준다.⁴⁴ 이런 확장은 종말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형된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에덴동산이라는 사실에서 더욱 신빙성을 얻는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37:26-28에서 하나님이 백성과 거하는 장소는 일종의 에덴동산이다. 에덴은 성전의 이미지를 가진다. 에덴이 만물의 중심으로서 성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이후에 구약에서 언

42) 막대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에쯔”(עֵץ)이다(16, 17, 19, 20). 이 단어는 우상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이다(호 4:12, 10:6; 렘 6:6). 이런 의미에서 에스겔은 회복되기 전의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이미지를 우상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Kutsko, *Between Heaven and Earth*, 140 참조.

43) Sprinkle, “Law and Life,” 279.

44) Elizabeth R. Hayes, “The Influence of Ezekiel 37 on 2 Corinthians 6:14-7:1,” in *The Book of Ezekiel and Its Influence*, 134.

급되는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 관련된 특징들이 에덴과 많은 유비점을 갖는다는 사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⁴⁵ 그러므로 에스겔은 성전으로서 기능하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내다보고 있다.⁴⁶ 또한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형되어 다시 에덴과 같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점은 에스겔 40-48장에 그려진 종말의 성전이 에덴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표 한다는 데서 지지를 얻는다. 그러므로 종말에 하나님이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하여 에덴에 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이상의 관찰을 종합해 볼 때, 에스겔 37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할 때, 그는 우상과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변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한 것임을 교훈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성령에 의한 생명은 단순히 생명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 명령들에 순응하는 삶으로 연결된다. 또한 이 생명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성취하고 그 나라를 완

45) T. D. Alexander, *From Paradise to the Promised Land: An Introduction to the Pentateuch*, 2nd Ed. (Grand Rapids, MI: Baker, 2002), 131. 여기서 Alexander는 성막 안에 촛대(lampstand)는 생명나무를 상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6) 안식에 대해 구약 신학자들의 견해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지만 안식의 의미 중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으로 설명된다(사 66:1-2; 시 132:14 참조).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는 왕으로서의 임재이다(시 99:1). 그러므로 안식은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여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안식을 설명한 글로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Samuel Terrien, *The Elusive Presence: Toward a New Biblical Theology* (New York: Harper & Row, 1978), 390-405 참조.

성하는 데에 있다. 이제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논의가 다른 구절들에서 어떻게 지지를 받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IV. 정경적 문맥에서 에스겔 37장과 본문 상호간 읽기

지면상 모든 구절들을 다룰 수는 없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에스겔 1-12장과 신약의 본문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A. 에스겔 1-12장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에스겔 2-3장의 소명 이야기는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이미지를 내포한다. 에스겔 3:3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울 것을 말씀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다.⁴⁷ 창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메에”(מַעַי)는 은유적으로 마음 속 깊은 곳을 가리킨다.⁴⁸ 에스겔 3:10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것”을 말씀한다. 에스겔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모습은 당시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바벨로 포로 공동체는 2-3장 문맥에서 마음이 강박한 자들로 묘사된다. 에스겔 3:7에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하다”라고 진술한다. 여기서 이마는 히브리어 단어로 “메짜흐”(מִצְחָה)이다. 이 단어

47) W. H. Brownlee, *Ezekiel 1-19*, WBC 28 (Waco, TX: Word Books, 1986), 32.

48) Clean L. Rogers, Jr., “מַעַי,” *NIDOTTE: 2*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7), 1013.

의 발음은 3:3에서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메아”(מַעַי)와 언어적 유희를 이룬다. 이런 언어적 유희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에스겔과 달리 마음이 굳은 완악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대조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로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

에스겔 3:3에서 창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마음이라는 말의 은유적 표현이다. 흥미롭게도 이 창자라는 단어는 에스겔 7:19에서 다시 언급된다. 에스겔 7:19는 심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유다 백성들이 금과 은으로 그들의 창자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한다. 언뜻 듣기에 이 말씀은 금과 은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처럼 들린다(슌 1:18). 하지만 이 구절은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금과 은으로 된 우상처럼 변했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여기서 금과 은은 우상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가리킨다(겔 16:17).⁴⁹⁾ 그러므로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우상의 재료인 금과 은으로 채워졌다고 말하고, 심판 때에 그런 금과 은으로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에스겔 3장과 7장의 진술은 우리가 앞에서 이끌었던 결론에 잘 부합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우상과 같이 가증한 존재로 치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⁵⁰⁾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이 우상을 섬길

49) Odell, *Ezekiel*, 94.

50) 겔 7:19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은 우상처럼 변한다는 주장은 에스겔 6-7장의 구조에서도 지지를 얻는다. 그래서 에스겔 6-7장의 구조로 보면 7:19는 음란한 마음으로

때 가짜 하나님의 형상인 우상으로 전락한다는 신학은 에스겔 8-11장의 수사적 구조에서도 발견된다. 존 데이(John N. Day)는 에스겔 8-11장의 구조를 다음과 같은 동심원 구조로 이해했다.⁵¹

- A. 서론(8:1-4)
 - B.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 제기(8:5-18)
 - C. 땅과 지도자에 대한 심판(9장)
 - D.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남(10장)
 - C'. 땅과 지도자에 대한 심판(11:1-13)
 - B'.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 해결(11:14-21)
 - A'. 결론(11:22-25)

이 구조에서 주목할 부분은 B(8:5-18)/B'(11:14-21)의 평행이다. B 단락(8:5-18)은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섬기는 행태를 지적하고 있고, B' 단락(11:14-21)은 그런 우상숭배를 치료하는 종말의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다. 특별히 B' 단락에 에스겔 11:19는 “돌의 마음”을 새 영으로 제거한다고 말씀한다. “돌의 마음”을 새로운 영(여호와의 영)을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사

우상숭배를 한 것(6:6-8)과 짝을 이룬다.

- A. 이스라엘 산들과 우상에 대한 심판 예언(6:1-7)
 - B. 음란한 마음으로 우상과 가증한 일을 한 것에 대해 한탄(6:8-10)
 - C. 칼과 은역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임(6:11-14)
 - D. 끝났도다(7:1-9)
 - C'. 칼과 은역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임(7:10-17)
 - B'. 금과 은으로 마음을 채워 강포를 행하고 우상을 섬긴 자들이 더럽히질 것(7:18-22)
 - A'. 성소에 대한 심판 예언: 목시와 율법과 모략이 없어질 것임(7:23-27)

51) John N. Day, “Ezekiel and the Heart of Idolatry,” *Bibliotheca Sacra* (2007): 24.

람들의 마음이 우상과 같은 재료인 돌과 같이 되었음을 말하고 그들이 우상처럼 변했음을 은연중에 강조한다.⁵²

B. 신약

에스겔 37장은 바울의 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바울은 종말의 성령이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매우 강조했다.⁵³ 이와 관련해서 로버트 서(Robert H. Suh)는 바울의 에베소서 2장이 에스겔 37장의 패턴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⁵⁴ 그 패턴은 다음과 같다.⁵⁵

에스겔 37장	에베소서 2장
마른 뼈처럼 죽은 이스라엘(1-2절)	죄에서 죽은 이방인들(1, 5절)
이스라엘을 살림(5-10절)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5절)
무덤에서 이스라엘을 일으킴 (12-13절)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일어남 (6절)
약속의 땅으로 인도(12-13절)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힘(6절)
하나님을 알게 함(13-14절)	은혜의 부요함을 알게 함(7절)
유대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됨 (16-17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됨 (14-18절)
올레대로 행함(24절)	하나님의 길로 행함(10절)
화평의 언약(26절)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14절)
성소가 영원토록 있음(27-28절)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됨(19-22절)

52) 에스겔 20:32는 우상을 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53) Levison, "The Promise of the Spirit of Life in the Book of Ezekiel," 247.

54) Robert H. Suh, "The Use of Ezekiel 37 in Ephesians 2," *JETS* 50/4 (2007): 715-733 참조.

55) 여기서의 패턴은 필자가 서(Suh)의 패턴을 약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패턴을 보면,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에스겔 37장에 근거해서 종말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인 새 사람이 되어,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은 에스겔 37:27-28에서 성전의 개념을 엡 2:19-22에서 성령 안에서 지음 받는 성도들에 적용하여 성도가 성전이 된다는 논리를 편다. 에스겔 37장과 에베소서 2장의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에스겔 37장의 하나님의 형상의 신학적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말로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바울에게서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또 다른 표현이다(엡 4:23-24; 골 3:10; 롬 6:4 참조). 이 새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엡 4:18, 22). 더욱이 바울은 에스겔 37장의 성전의 의미를 새 사람에 적용시키고, 그 새 사람을 성전으로 등치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는 성전임을 밝힌다.

믿는 성도가 성전이라는 사실은 고린도후서 6:14-16에서도 발견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16에서 에스겔 37:27을 인용하며 신약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⁵⁶ 에스겔서에서 종말의 성전은 성전벽도 없고 법제도 없다. 이것은 종말의 성전이 이전과 같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님을 의미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16에서 에스겔 37:27을 인용하면서 신자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의했다.⁵⁷ 더욱이 고린도후서 6:16에서 바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성전과 우상으로 비유하고 신자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칭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는 우상과 다름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런 암시는 에스겔서에서

56) Hayes, "The Influence of Ezekiel 37 on 2 Corinthians 6:14-7:1," 123-135.

57) Hayes, "The Influence of Ezekiel 37 on 2 Corinthians 6:14-7:1," 139.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대로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그는 우상과 같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진술은 우리가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논의한 바와 통일성을 이룬다. 바울은 에스겔 37장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형상의 신학을 계승하여 그 의미를 더욱 심화시켰다. 바울은 에스겔서와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과 다름없다는 인식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새 사람이 될 것을 강조했다.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길은 성령에서 나오는 생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며,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서로 연합해 가는 것이다(엡 2:22).

V. 제언

이상에서 에스겔 37장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논의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련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거짓으로 형상화한 우상으로 여기신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우상의 재료인 돌, 금, 은으로 변해 있다(겔 7:19; 11:19; 20:32; 36:26). 그래서 생명이 없는 가증한 우상으로 전락하게 되어, 살아있지만 마른 뼈처럼 죽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겔 6:1-10; 37:1-3).

둘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

야 하는데, 이 생명은 바로 성령을 통한 생명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우리 속에 성령의 생명을 받아야 한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변형은 선지자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겔 37:7).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 즉 말씀에 대한 회개의 반응이다.⁵⁸ 에스겔 선지자는 미래의 영적 회복은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선지자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 회개의 반응을 보일 때 이루어진다고 선포했다(겔 18:30-31).⁵⁹ 말씀으로 인한 회개의 반응과 함께 성령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내주하여 우리가 성전이 되어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말씀)로 살아간다는 것이다(겔 37:24; 엡 2:10).

넷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고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겔 37:27-28; 40-48장; 엡 2:20-22).

이상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그 속에 성령의 생명이 내주하는 자임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필자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생명(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속에 갖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계

58) Renz, *Rhetorical Function of the Book of Ezekiel*, 116.

59) Renz, *Rhetorical Function of the Book of Ezekiel*, 117.

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지만 바울의 직설법(indicative)과 명령법(imperative)의 구도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엡 4:23-24; 고후 3:18).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성령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학함의 전제이며 토대이다.

끝으로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스라엘은 38-39장에서 곡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로 등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이 된 자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엡 6:11-18). 성령의 생명(영적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이다. 전신갑주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은 진리의 띠/의의 흉배/구원의 투구(신학회복운동), 믿음의 방패/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신앙운동), 성령 안에서 기도(성령운동과 기도운동),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나눔운동) 등을 지적했다. 이런 지적은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선언문에서 표방하는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영적생명운동, 하나님나라운동, 기도운동, 성령운동, 그리고 나눔운동과 일치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혁주의생명신학이 추구하는 7대 실천운동은 진정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실천운동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뜻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참고문헌

- 클레인, R. W. 『에스겔』. 박호영 역. 서울: 성지출판사, 1999.
- Alexander, T. D. *From Paradise to the Promised Land: An Introduction to the Pentateuch*, 2nd Ed. Grand Rapids, MI: Baker, 2002.
- Allen, Leslie C. *Ezekiel 20-48*. WBC 29. Dallas, TX: Word Books, 1990.
- Blenkinsopp, Joseph. *Ezekiel*.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 Block, Daniel L.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1998.
- Brownlee, W. H. *Ezekiel 1-19*. WBC 28. Waco, TX: Word Books, 1986.
- Callender, Dexter E., Jr. "The Prime Human in Ezekiel and the Image of God." In *The Book of Ezekiel: Th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ed. Margaret S. Odell and John T. Strong, 175-193. Atlanta: SBL, 2000.
- Day, John N. "Ezekiel and the Heart of Idolatry." *Bibliotheca Sacra* (2007): 21-33.
- de Jong, Matthijs J. "Ezekiel as a Literary Figure and the Quest for the Historical Prophet." In *The Book of Ezekiel and Its Influence*, ed. Henk Jan de Jonge and Johannes Tromp, 1-16. Burlington, VT: Ashgate, 2007.
- Dumbrell, William J. *The Search for Order: Biblical Eschatology in Focus*. Grand Rapids, MI: Eerdmans, 1994.
- Fishbane, Michael. "Sin and Judgment in the Prophecies of Ezekiel." *Int* 38 (1984): 131-150.
- Hayes, Elizabeth R. "The Influence of Ezekiel 37 on 2 Corinthians 6:14-7:1."

- In *The Book of Ezekiel and Its Influence*, ed. Henk Jan de Jonge and Johannes Tromp, 123–136. Burlington, VT: Ashgate, 2007.
- Kiuchi, Nobuyoshi. *Leviticus*. AOTC. Downers Grove, IL: IVP, 2007.
- Kutsko, John F. *Between Heaven and Earth: Divine Presence and Absence in the Book of Ezekiel*. Biblical and Judaic Studies 7.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0.
- _____. “Ezekiel’s Anthropology and Its Ethical Implications.” In *The Book of Ezekiel: Th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ed. Margaret S. Odell and John T. Strong, 119–141. Atlanta: SBL, 2000.
- Lapsley, Jacqueline E. “A Feeling for God.” In *Character Ethics and the Old Testament: Moral Dimensions of Scripture*, ed. M. Daniel Carroll R. and Jacqueline E. Lapsley, 93–102. Louisville: WJK, 2007.
- _____. “The Problem of the Moral Self in the Book of Ezekiel.” Ph.D. Diss., Emory University, 1999.
- Levision, John R. “The Promise of the Spirit of Life in the Book of Ezekiel.” In *Israel’s God and Rebecca’s Children: Christology and Community in Early Judaism and Christianity*, ed. David B. Capes and et al, 247–259. Waco, TX: Baylor University Press, 2007.
- Odell, Margaret S. *Ezekiel*.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GA: Smyth & Helwys Publishing, 2005.
- Renz, Thomas.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Book of Ezekiel*. Boston: Brill, 2002.
- Seitz, Christopher R. “Ezekiel 37:1–14.” *Interpretation* 46 (1992): 53–56.
- Smith-Christopher, Daniel L. *A Biblical Theology of Exile*. Minneapolis: Fortress, 2002.
- Sprinkle, Preston. “Law and Life: Leviticus 18.5 in the Literary Framework of Ezekiel.” *JSOT* 31/3 (2007): 275–293.

- Suh, Robert H. "The Use of Ezekiel 37 in Ephesians 2." *JETS* 50/4 (2007): 715-733.
- Thompson, David L. "Ezekiel." In *Cornerstone Biblical Commentary*, vol. 9, ed. Philp W. Comfort, 1-284. Carol Stream, IL: Tyndale House Publishers, 2010.
- Tromp, Johannes. "'Can These Bones Live?': Ezekiel 37:1-14 and Eschatological Resurrection." In *The Book of Ezekiel and Its Influence*, ed. Henk Jan de Jonge and Johannes Tromp, 61-78. Burlington, VT: Ashgate, 2007.
- VanGemeren, Willem A.,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5 vols.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7.
- Wendland, Ernst R. "'Can These Bones Live Again?': A Rhetoric of the Gospel in Ezekiel 33-37, Part II." *Andrew University Seminary Studies* 39 (2001): 241-272.
- Wright, T. John. "The Concept of Ruach in Ezekiel 37." In *Seeing Signals, Reading Signs: The Art of Exegesis*, ed. Mark A. O'Brien and Howard N. Wallace, 142-158.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4.
- Zimmerli, W. *Ezekiel I*. Translated by R. E. Clements.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1979.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개혁주의생명신학

김창대(Chang Dae Kim)

안양대학교, 구약학

본 연구는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위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데에 있다. 먼저 에스겔서에서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다른 주제들과 모티프들을 주목했다. 에스겔서에서는 창조 모티프, 에덴동산 모티프,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신학적 주제, 그리고 피 흘림과 폭력이라는 주제가 두드러지게 등장한다. 재미있게도 이러한 주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주제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피 흘림과 폭력의 주제는 창세기 9장 6절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에스겔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살인죄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신학을 제시한다.

우상숭배의 논쟁의 경우도 그 배후에 우상이 일종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했던 당시 바벨론 신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우상숭배를 강하게 질타한다. 그는 우상은 하나님을 가짜로 형상화한 것이기에 그것을 숭배하는 자는 가짜 형상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논리를 펴낸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가 믿는 우상처럼 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에스겔

6장 참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마른 뼈의 환상은 유다가 우상숭배를 통해 우상처럼 생기가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상황을 영적으로 보여 준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우상처럼 변한 유다를 종말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는 모습이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형되는 패턴은 신약의 에베소서 2장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다. 바울은 에스겔 37장의 패턴을 사용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되었고, 더욱이 성전으로 지음 받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그 속에 성령의 생명이 있는 자이며, 성령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우상과 같은 존재임을 에스겔서와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교훈한다.

주제어: 에스겔, 하나님의 형상, 개혁주의 생명신학, 종말의 성전, 에덴

Abstract

The Image of God in the Book of Ezekiel and Reformed Life Theology

Chang Dae Kim

Anyang University, Old Testament

This study has attempted an exploration of what is the basis of Reformed Life Theology under the sovereignty of God as shown in the image of God in the book of Ezekiel. For this, our chief attention has been devoted to Ezekiel 37 where the dried bones are made alive through the Holy Spirit. It is argued that this vision of dried bones being made alive is a metaphor symbolizing the restoration of Israel into the image of God. Indeed, the theme of the image of God is scattered in the entire book of Ezekiel in several forms. Behind the creation motif, the Eden motif, the debate of idol worship, and the issue of bloodshed/violence in Ezekiel lies the theme of the image of God.

Especially, the issue of bloodshed/violence is closely related to the theme of the image of God. In Gen 9:6, it is said that bloodshed should be punished because man i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In this light, it may well be said that the issue of bloodshed/violence involves the creation of man into the image of God. The theme of the image of God occurs more prominently in the debate over idol worship. At the time of

Ezekiel, the Mesopotamian theology regarded statues of gods as images of gods. In criticizing this theology, Ezekiel 37 suggests that when man who was originally the image of God worships idols, he will become like idols representing false images of God. And then Ezekiel 37 envisions the restoration of Israel into the image of God in the eschaton. This pattern was followed by Paul in Ephesians 2. In the end, those who are created into the image of God have the life of the Spirit within them; and those who don't have the life of the Spirit are considered to be like idols by God.

Key words: Ezekiel, The Image of God, Reformed Life Theology, The Eschatological Temple, Eden.

논문 접수일: 2011. 8. 2. 수정 접수일: 2011. 9. 30. 게재 확정일: 2011. 10. 15.